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8

▶ 79회 예고
아쇼까왕 대군은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친 깔링가국 보병 주력부대 10만 명과 일전을 벌인다. 그러나 깔링가국 보병은 중과부적으로 참패한다. 아쇼까왕은 깔링가국 왕이자 총사령관을 처형하고 자신은 그 칼을 다야강에 버린다.



아쇼까왕, 다야강으로 진격하다

건기에 비가 내렸다. 건기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드문 일이었다. 땅을 촉촉이 적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빗발이 옷을 적셨다. 군사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다. 건기의 비가 행운의 신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우리아국 대군은 기세 좋게 짬빠성을 출발했다. 마하다니강 너머는 깔링가국 영토였다. 보병은 타고 온 전선에 다시 승선했다. 강가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브라마뿌뜨라강을 만나는 지점에서 하선할 계획이었다. 그 지점부터 강가강은 동쪽으로 흘렀다.

두 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이 마우리아국 대군의 2차 집결지였다. 짬빠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도 2차 집결지로 향했다. 아쇼까왕은 짬빠성을 떠날 때부터는 보병과 함께 하지 않고 전투코끼리를 타고 지휘했다. 정찰대장이 아쇼까왕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이시여, 2차 집결지는 안전합니다. 적들이 없습니다. 적들은 마하다니강 2요자나 밖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왜 마하다니강 멀리 있는지 이상합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우리는 적들이 어디에 있든 마하다니강부터 전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오. 방심을 경계해야 하오."

옆에 있던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마하다니강을 건너는 우리 군사를 협공하기 위한 적들의 위장전술이 아니겠습니까?"

아쇼까왕이 대답하지 않자 정찰대장이 말했다.

"협공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오. 군사들이 은폐할 수 없는 벌판이오."

"경계병도 보이지 않소?"

"그렇소."

두 대장의 말을 듣고 있던 아쇼까왕이 말했다.

"적들은 다야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을 것이오. 다야강 앞에서 우리 대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정찰대장이 다시 말했다.

"마하다니강은 깊고 다야강은 얕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합니다."

"적들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바로 다울리 언덕으로 후퇴하여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그럴 것이오."

"그렇다면 적의 전투지휘소는 다울리 언덕에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장의 말이 맞소. 적들은 우리에게 밀리면 다울리 언덕을 성처럼 이용해서 싸울 것이오. 다울리 언덕 뒤쪽에는 최후 방어선을 치고 있는 적군이 또 숨어 있을 것이오."

정찰대장과 선봉대장은 아쇼까왕의 예상과 판단에 내심 놀랐다. 깔링가 군사가 어떤 작전을 펼지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많은 전투경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20대 전에 부왕시절 탁실라와 옛 아반티국 웃자인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체득한 전술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윽고 마우리아국 대군은 2차 집결지에 모였다. 2차집결지에 오는 동안 안전사고나 도망병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짬빠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군사들은 사기가 한껏 올라 있었다. 아쇼까왕은 코끼리부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동법당 수레를 싣고 온 뗏목을 전투코끼리 옆구리에 묶으시오."

"수십 척의 뗏목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소."

호위대장에게는 강이 많은 깔링가국에서 군사들의 도강용으로 뗏목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코끼리부대장에게는 아쇼까왕의 전술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다.

코끼리부대장은 아쇼까왕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즉시 뗏목의 통나무들을 힘센 전투코끼리들 옆구리에 묶었다. 전투코끼리가 움직이는 데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그제야 코끼리부대장에게 말했다.

"뗏목의 통나무들로 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널 것이오."

"대왕님의 전술은 위대하십니다. 코끼리들이 어떻게 강을 건너갈 것인지 저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쇼까왕은 대장들에게 2차집결지부터는 공격대오를 유지하도록 명을 내렸다. 기마부대, 코끼리부대, 보병, 이동법당수레 순으로 움직였다. 대오는 즉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독수리 날개 같은 횡대를 유지했다.

마침내 마우리아국 대군은 마하다니강 강변에 도착했다. 정찰대장의 보고대로 강변에는 적들의 경계병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정찰을 시켰지만 적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쇼까왕이 대장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것도 적의 유인작전이오. 그러나 여기서 지체하지 마시오. 보병은 즉시 마하다니강에 뗏목으로 다리를 만드시오."

"대왕님이시여, 적의 유인작전이 오히려 우리 군사를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소. 나라면 여기서 일전을 벌이겠소. 적은 우리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소."

"짬빠성을 떠날 때 비가 왔는데 행운의 신이 우리 군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동법당이 있소. 고따마 붓다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오."

수십 만 명의 보병이 나서서 다리를 가설했다. 아쇼까왕과 대장들은 이동법당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승리를 기원했다. 사문들이 불경을 합송했다. 이동법당 수레에는 전투코끼리 두 마리가 묶여 있었다. 이동법당 앞에서 기도를 한 아쇼까왕은 일어나 전투코끼리에 올라탄 뒤 호위대장을 앞세우고 순시를 했다.

보병 수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 가설은 신속했다. 전투코끼리 옆구리에 묶어서 가져온 통나무들을 밧줄로 고정한 뒤 마하다니강에 놓기 시작했다. 고정시킨 뗏목들이 강 이쪽저쪽을 채우자 그대로 다리가 되었다. 그 사이 전투코끼리들은 강물에 코를 박고 물을 실컷 마셨고, 군마들은 강변의 부드러운 풀을 뜯으며 배를 불리는 데 정신이 없었다.



이제는 마우리아국 대군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전투에 돌입하는 상황이었다. 마하다니강 유역은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다. 먹구름 같은 전운이 짙게 감돌았다.

한편, 깔링가국 주력부대는 아쇼까왕의 예견대로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다야강 뒤쪽 다울리 언덕에도 석성을 쌓고 깔링가국 군사와 백성들이 수성전으로 방어할 태세였고, 다울리 언덕 뒤 평원에서는 깔링가국 기마부대들이 타격전을 펼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다리 가설이 끝나자마자 아쇼까왕이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강을 건넌 뒤 모든 부대는 전투횡대를 갖추고 공격하라!"

"예, 대왕님!"

"공격 순서는 기마부대, 코끼리부대, 보병 순이다. 나 아쇼까는 맨 앞에서 지휘할 것이다."

전투코끼리를 탄 아쇼까왕이 먼저 다리를 건넜다. 그런데 전투코끼리가 앞발을 들고 허공을 솟구쳤다가 통나무를 밟았다. 전투코끼리 앞발의 힘이 얼마나 센지 통나무 하나가 우지직 하며 부러졌다. 순간적으로 전투코끼리 앞발이 하나 강물에 빠졌다. 아쇼까왕은 앞으로 거꾸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했다. 다만 옆구리에 찬 아쇼까왕의 칼이 강물에 빠져버렸다. 호위대장과 선봉대장이 쫓아왔다. 몸의 중심을 잡은 아쇼까왕이 말했다.

"애지중지하던 칼을 잃어버렸소."

"대왕님이시여, 군사들을 강물 속으로 들여보내면 바로 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소. 나에게는 이 장검이 있으니 상관없는 일이오."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그러긴 하오나 단검을 빠뜨린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그러니 단검을 찾으신 뒤 적을 공격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강물 속에서 칼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소. 이상한 소문이 퍼져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될지 모르오. 그러니 나는 이 일과 상관없이 공격을 개시하겠소. 북을 두드리게 하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이 먼저 마하다니강을 건너갔다. 북소리에 따라 기마부대가 건너왔다. 그리고 코끼리부대, 보병이 무사히 강을 건넜다. 아쇼까왕은 기마부대 한 중앙에서 긴 칼을 휘두르며 지휘했다. 대군을 따라오지 않는 것은 이동법당 수레뿐이었다. 사문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멀리서 무운을 비는 기도에 들어갔다. 물론 이동법당 수레 주변에도 수십 명의 보병 군사가 배치되어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했다.

기마부대 10만 명은 4열 전투횡대로 뒤에 오는 보병을 감안해서 천천히 진격했다. 긴 기마부대원의 끝은 구릉에 맞닿았다. 코끼리부대 9천 명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동시에 움직이자 평원의 푸나무들이 일시에 흔들렸다. 보병들은 메뚜기 떼의 이동처럼 평원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탐망을 나갔던 정찰대장이 돌아와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말씀대로 적들은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떠하오?"

"보병 주력부대만 1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다울리 언덕의 군사는 어떻소?"

"주력부대만 궤멸시킨다면 다울리 공격은 수월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인 토병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울리 언덕 뒤에 있는 기마부대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군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왕은 전령을 시켜 호위대장과 선봉대장, 코끼리부대장을 불렀다.

"대장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라."

선봉대장은 기마부대를, 호위대장은 보병을 통솔하고 있었다. 잠시 후 대장들이 바로 달려왔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부르셨습니까?"

"정찰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적 10만 보병이 다야강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 확실하오. 그러니 우리 기병 5만 명을 먼저 보내 공격하시오."

"코끼리부대는 다야강을 바로 건너가 다울리 언덕 뒤에 있는 적의 기마부대를 궤멸시켜버리시오. 호위대장은 보병으로 적의 산졸(散卒)을 소탕하고 난 뒤 다울리 언덕을 점령하시오."

명령을 받은 대장들이 원위치로 돌아갔다. 기마부대 1진 5만 명이 일제히 다야강을 향해 비호처럼 달려갔다. 기마부대장이 기마군사들에게 명했다.

"너희 한 명의 칼에 적 열 명의 피를 묻혀야 한다. 알겠느냐!"

기마부대 2진 5만 명은 보병 뒤로 돌아가 예비 기마부대로서 아쇼까왕의 지시를 기다렸다. 코끼리부대 9천 명도 바윗덩어리가 굴러가듯 무섭게 돌진했다. 코끼리 발에 잡목이 부러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마치 혹서기에 부는 흑풍 같았다. 코끼리부대장도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쓰러진 적들을 모두 짓밟고 돌진하라!"

장창을 든 보병은 흙먼지 속에서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갔다. 호위대장은 군마를 타고 보병 속을 헤집고 다니며 소리쳤다.

"적들에게 용서는 없다.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사실, 깔링가국 주력부대인 보병 10만 명은 아쇼까왕의 1백여 만 명의 대군 앞에서는 흑풍에 나부끼는 나뭇잎 같은 전력일 수밖에 없었다. 아쇼까왕이 유인작전이나 포위전술, 지연전술을 쓰지 않고 속전속결의 전술로 정면 돌파작전을 명령한 것은 바로 전력의 절대적인 우위를 믿기 때문이었다.〈계속〉

